『제임스조이스저널』
제24권 1호(2018년 6월) 35-65

『댈러웨이 부인』에 나타난 생성의 순간들: 니체 철학을 중심으로

김 금 주

I

『댈러웨이 부인』(*Mrs. Dalloway* 1925)에서는 런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근대 도시인의 삶과 그들의 경험이 드러난다. 소설의 서두에서 20년을 넘게 런던의 중심가인 웨스트민스터에서 살아온 클러리사 댈러웨이(Clarissa Dalloway)는 1923년 6월의 어느 날 아침 그날 밤의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꽃을 사러 거리로 나간다. 그리고 런던 도심의 거리를 거니는 그녀의 감정이 표출된다.

> 우리는 너무나도 바보들이야, 빅토리아 거리를 건너며 그녀는 생각했다. 왜냐하면 하늘만이 아시기 때문이지. 왜 우리가 삶을 그렇게 보는지, 구성하고, 하나를 중심으로 쌓아 올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매순간 새롭게 삶을 창조하는지 말이야. . . . 사람들의 눈 속에, 활기찬 걸음, 터벅터벅 걷는 무거운 발걸음 속에, 크게 울리는 소리와 소란함, 마차들, 자동차들, 버스들, 화물차들과 발을 질질 끌며 몸을 흔들고 지나가는 샌드위치맨들, 취주악대들, 휴대용 풍금들 속에, 승리의 기쁨과 짤랑짤랑 울리는 소리, 머리 위 어떤 비행기의 기묘하고 높은 소리 속에 그녀가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 삶이, 런던이, 유월의 이 순간이

말이다.[1)]

런던 거리의 역동성과 활력을 느끼면서 "쌓아 올리고, 무너뜨리고 . . . 매순간 새롭게 삶을 창조"(4)한다고 하는 클러리사의 주장은 근대적 도시의 역동성을 체험하는 모더니스트로서의 경험과 유사한 것이다. 말콤 브래드베리(Malcolm Bradbury)의 설명처럼 런던과 같은 근대의 대도시는 상이한 역할과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유입되어 마찰과 변화가 발생하고 새로운 의식이 싹트는 장소이다(97-98). 그리고 근대적이 된다는 것은 마샬 버먼(Marshall Berman)이 지적하듯이 "우리에게 모험, 권력, 기쁨, 성장, 우리 자신과 세계의 변혁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 위협하는 환경에 처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근대성은 영원한 해체와 갱신, 투쟁과 모순, 모호함과 괴로움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우리를 빠뜨리"는 역설적이고 양면적인 것으로 나타난다(15). 버먼은 이러한 근대화가 문화의 영역에서 성장시킨 다양한 비전과 이념이 바로 모더니즘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다양한 모더니즘의 일차적 원천자로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를 지목한다(19)[2)].

니체는 근대화 이후 과학과 이성에 바탕을 둔 진보라고 하는 근대의 이념에 문제를 제기한다. 절대자인 신을 대신하여 이성에 의해 진리를 찾으려는 근대인들이 자기 부정과 평균성에 기초한 대중화로 퇴화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니체는 근대의 문제를 문화적 퇴락과 분열, 창조력의 쇠잔을 초래하는 병리적 현상으로 파악하여 이를 '생리적 데카당스'의 표현으로서 허무주의라고 진단한다(『니체 전집 21』 403). 그런데 니체는 허무주의를 이중적 의미로 해석하는데, 정신력의 하강과 퇴행으로 이해되는 것을 "수동적 허무주의"로, 고양된 정신력의 기호를 읽

1) Virginia Woolf, *Mrs. Dalloway*, p. 4. 앞으로 이 책의 인용은 괄호 안에 쪽 수로 표시한다.

2) 존 버트 포스터 주니어(John Burt Forster, Jr.)는 모더니즘이 "가까운 과거와 단절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니체의 유산"(417)이라고 이해한다. 브래드베리(Malcom Bradbury)와 맥패린(James McFarlane)은 모더니즘의 본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특별한 규범으로서 그리고 드러냄의 특별한 상태로서 현대적 사상가의 핵심적인 사고가 니체에게서 나타난다"(30)고 설명한다. 그리고 프란츠 쿠너(Franz Kuna)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니체의 통찰과 모델들이 묘하게도 현대 소설의 구조와 은유적인 디자인을 결정지었다"(451)고 말한다.

히는 것을 “능동적 허무주의”로 진단하고(『니체전집 20』 22-23), 이 능동적 허무주의에서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 능동적 허무주의는 “허무주의를 이미 자신의 내부에서 끝까지 체험해본 자”(『니체전집 20』 518)가 표출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형이상학적 해석들을 해체하고 파괴하여 삶의 긍정적인 가치를 생산하려 한다는 점에서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니체는 이렇게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것으로서 부단한 파괴와 창조의 과정을 강조하는데, 이 과정은 자기비판과 갱신이라는 모더니즘의 정신과 맥을 같이한다. 그리고 이 부단한 파괴와 창조의 과정은 니체가 주장하는 “생성”(becoming), 즉 “고안해 내고, 의욕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극복하는 것으로서의 생성”(*WP* 331)의 사유에서 분명히 드러난다.[3)]

니체는 변하지 않는 본질로서의 존재를 불신하여, “우리에게 유일하게 보장되어 있는 존재는 변화하고 있으며, 스스로와 비동일적인 것이며, 관계들을 가지고 있다. . . . 이것이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확실성이다”(『니체전집 12』 581)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렇게 영원히 변해 가는 과정을 “어떠한 포만이나 권태나 피로도 모르는 생성”이라 칭하고, 이러한 생성의 세계를 “영원한 자기 창조와 영원한 자기 파괴라고 하는 이러한 나의 디오니소스적인 세계”(『니체전집 18』 436)라고 말한다. 이러한 생성의 과정에서 매순간은 그 자체로 충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니체는 “살아 있는 것이 존재다. 그밖에는 어떤 존재도 없다”(『니체전집 19』 17)라고 단언하면서 생성으로서의 삶과 생성의 바로 이 순간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하여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Thus Spoke Zarathustra*)에서 바로 이러한 생성으로서의 ‘순간’에 영원성을 부여하고, 생성을 영원회귀의 사유로 표현한다.

> “길은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두 개의 길이 여기서 만나는 것이다: 그 길들을 끝까지 가본 사람은 아직 없다. 뒤로 나 있는 이 긴 골목길: 그 길은 영원으로 통한다. 그리고 저쪽 밖으로 나 있는 저 긴 골목길—거기에 또 다른 영원이 있다. 이들 두 길은 예서 마주치고 있다;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 바로 이 성문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다. 그 위에 성문의 이름이 씌어 있구나: ‘순간’이라는.” (178)

---

3) 니체의 근대적 이념에 대한 비판과 생성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졸고 “울프의 『파도』에 나타난 자기 창조의 문제: 니체의 ‘생성’을 중심으로”, pp. 125-26에서 언급했다.

여기에서 출입구는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장소로서 지금의 이 순간이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Zarathustra)의 입을 빌려 시간을 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난쟁이에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Za* 178)라고 화를 낸다. 짜라투스트라는 시간이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원의 형태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순간인 현재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곧은"(*Za* 178) 것으로 파악한다. 이 순간은 단순히 지나쳐 가는 찰나의 순간이 아니다.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짜라투스트라가 말한 '순간'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순간에 "과거와 미래의 충돌"이 발생하며, 이 순간에 서 있는 인간은 "자신에게 과제로서 부과되어 있는 것과 그에게 주어진 것 사이의 투쟁을 전개하고 견뎌냄으로써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달려오는 것들을 자신 안에서 충돌하게 한다"고 말한다(57). 따라서 이 순간은 과거와 미래가 충돌하는 의미 있는 만남의 순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순간은 영원성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이것은 초시간적이고 초월적인 상태나 종교적 영원성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들뢰즈(Gilles Deleuze)가 『니체와 철학』(*Nietsche and Philosophy*)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니체가 언급한 '순간'은 최종적인 상태나 균형을 가정하고 있지 않으며 존재의 단 한 순간도 아니고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의 순간도 아니다(47-48). 이 "순간은 (다른 순간들을 위해서) 지나가기 위해서 현재인 동시에 도래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는 지나간 것으로 또 도래해할 것으로 자신과 더불어 공존해야만 한다. . . . 그러므로 영원회귀는 이행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다"(48). 따라서 들뢰즈는 "그런 점에서, 그것은 . . . 똑같은 어떤 것의 회귀로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 . . 되돌아옴 그 자체는 그것이 자신을 생성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긍정하는 한에서 존재를 구성한다"(48)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매순간은 생성의 순간으로서 긍정되는 의미 있는 것이다. 백승영이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듯이 "개개의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각 순간들이 그것들의 영원회귀를 원할 정도로 필연적이고 가치가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 376). 니체는 이러한 생성의 모든 순간들, 즉 "끝없이 미소한 순간이 더 높은 차원의 실재이며 진리"(『니체 전집 12』 497)라고 말하며 생성의 모든 순간들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본다.

앞의 인용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클러리사가 유월의 이 "순간"을 "삶"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녀에게 이 삶은 쌓아올리고 무너뜨리면서 "매순간 새롭게" 창조하는 생성으로서의 삶이며(4), 이러한 역동적 삶의 이 순간은 같은 것의 반복이

아닌 영원성을 부여받을 정도로 높은 차원의 실재로서 충만하게 그녀에게 다가온다. 『댈러웨이 부인』에서는 이렇게 클러리사가 매순간 새롭게 창조하는 생성으로서의 '순간'에 마주하는 경험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니체가 주장한 것처럼 스스로의 삶을 조형해가는 예술 활동의 순간이기도 하다. 니체는 "바로 사실인 것은 없으며, 있는 것은 오직 해석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관점주의"(perspectivism)라고 설명하며(*WP* 267), 진리도 개개인의 관점에서 나온 해석이며, 개인의 창조물이라고 말한다(*WP* 301, 331). 따라서 니체는 스스로를 진리라 일컬어지는 것에 가두기보다 부단하게 가치를 창조할 것을 강조하여, "창조하는 자들이여! 가치의 변천, 그것은 창조하는 자들의 변천이기도하다. 창조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자는 끊임없이 파괴를 하기 마련이다"(*Za* 85)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성으로서의 삶의 창조적 과정을 예술 활동과 같은 것으로 파악하여, "우리 자신을 만드는 것, 모든 요소에서 하나의 형식을 형성하는 것－이것이 우리의 과제다! 항상 한 조각가의 과제!"(『니체전집 11』 472)라고 주장함으로써 예술가처럼 창조적으로 자신의 삶을 조형해 나갈 것을 강조한다.

그런데 클러리사는 런던 거리에서 느끼듯 삶을 매순간 쌓아올리고 무너뜨리면서 새롭게 창조하는 생성의 순간으로서 대응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안하게 이 순간에 대응하기도 한다. 클러리사에게 주어진 삶은 자연의 섭리에 따른 변화와 소멸,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는 전후 영국사회는 한편으로 제국주의적 팽창의 쇠퇴, 전쟁과 제국에 대한 불안과, 다른 한편으로 제국, 영국성, 남성성을 특징짓는 이데올로기를 유지해야할 필요성 사이에서 모순을 겪고 있는 사회였다(Peach 92). 이러한 사회가 남성중심적 담론을 강화시키고 여성들에게 이상적 여성성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4]에서 클러리사는 여성으로서 살아가야하는 어려움을 포함하여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그녀가 접할 수 있는 사건들 때문에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클러리사가 고통에 절망하거나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결국 그 순간을 긍정하게 되고 자기 창조를 멈추지 않는다는 점에

4) 1차 대전 이후 영국사회는 여성들이 전쟁동안 이뤄낸 공적영역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제한하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했다. 성과학은 남녀 영역분리 이론을 동원했고(Bristow 12-52), 성 역할에 도전하는 여성들을 "문명에 대한 위험"으로 간주했으며(Kent 300), 결혼하지 않고 독립하려는 여성들을 병, 변덕스럼움, 불임과 인종의 퇴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Showalter 39).

주목하였다. 이렇게 클러리사가 고통을 삶의 필연적 계기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며 부단히 스스로를 창조하고자 하는 태도는 니체가 말한 삶을 창조하는 예술가에 비견된다. 클러리사는 당대 이데올로기가 요구하는 여성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여성상으로부터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차별성을 찾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필자는 이러한 클러리사의 태도를 니체의 철학을 통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절대적인 본질이나 실체가 있는 것을 부정하고 생성만을 유일하게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니체에 따르면 주체에 대한 개념도 실체를 상정하는 철학적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나' 역시 생성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현대의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들에게 미친 영향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댈러웨이 부인』에서 클러리사가 자신을 포함한 세계를 보는 태도도 이런 식의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녀는 "이제 이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을 것이다. . . . 그녀는 자신에 대해서도 이러하다 저러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8-9)이라고 생각하며, "그녀 자신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양립할 수 없는 것들로 된"(37) 존재인지 자신만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두에서 런던 거리를 거니는 클러리사의 상념에서 드러나듯 그녀는 다양하면서도 양립할 수 없는 것들로 된 자신을 매순간 창조함으로써 자신을 "매순간 새롭게 삶을 창조"(4)하는 자기 창조자로서 모습을 보이며,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런던 거리의 역동성 속에서 이 "순간"을, "삶"(4)을 생성의 순간으로서 사랑한다.

그런데 『댈러웨이 부인』에서 클러리사가 느끼는 이러한 순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이것을 불안하게 하는 상념들이 끼어 들면서 종종 중단된다. 그녀가 사랑한 것이 "그녀 앞에 있는 이것, 여기, 지금"(9)이라고 말하지만 곧 빅벤의 울림으로 상기되는 시간의 흐름, 클러리사가 유행성 감기를 심하게 앓아 심장이 허약해진 사실과(4), "남자와 여자들 모두에게 눈물샘"(9)을 파놓은 전쟁의 경험은 늙음, 죽음에 대한 상념으로 이어지게 한다. 이와 같은 생각들은 클러리사가 순간에 대응할 때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작가인 울프가 느꼈던 고민과

도 유사한 것이다. 울프는 일기에서 “삶은 아주 견실한 것일까? 아니면 매우 변하기 쉬운 것일까? 이 두 모순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 . . 나는 파도 위를 구름처럼 지나갈 버릴 것이다”라며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변화하고 사멸해버릴지도 모르는 존재에 대해 불안함을 보인다. 하지만 곧이어 울프는 “비록 우리가 변하고, 차례로 잇달아 그처럼 빠르게, 빠르게 날아가 버리더라도 어쩌면 우리 인간은 계속적이고 연속적이어서 스스로를 통해 빛을 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정리한다(*WD* 138). 울프가 인간 존재에 대한 불안함을 피안의 세계에서 위로를 찾는 대신 어떤 연속성이나 “영혼”의 “변화,” 즉 “태양을 향해서 자기의 모습을 영구히 바꿔나”간다는 “나의 낙관주의”(*WD* 181)에서 찾는 것처럼 클러리사도 이러한 불안, 즉 늙음이나 죽음과 같은 것을 회피하려하거나 피안의 세계를 상상하지 않는다. 클러리사는 절대적 존재나 초월적 세계에 기대는 대신 “필연적으로 완전히 죽는다는 것이 문제가 될까. 그녀 없이도 이 모든 것들이 틀림없이 계속될 것이다. . . . 런던의 거리에서, 사물이 밀리고 미는 조류 속에서, 여기, 저기에서 살아남고 . . . 저기 있는 집의 일부가 되리라. 그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의 일부가 되리라. 그녀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의 일부가 되리라”(9)고 생각하면서 삶과 죽음을 엄격히 분리시키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클러리사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죽음을 우주적 생성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이와 같이 클러리사가 삶과 죽음, 자신과 타자의 이분법의 경계를 넘어 사물과 사람의 일부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점은 자신과 타자의 이분법을 넘어 우주적으로 느끼라고 말하는 니체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니체는 죽음을 생성의 과정에서 분리시키지 않고, “죽음이 삶에 대립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경계하자. 삶은 죽음의 한 형태일 뿐이며, 그것도 매우 희귀한 형태이다”(*GS* 168)라고 말하며 죽음을 삶과 분리시켜 두려워하기보다 생성으로서의 삶 자체를 긍정할 것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니체가 “우리는 한 그루 나무에 달린 꽃봉오리다. . . .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이기를 바라며 . . .‘나’와 모든 ‘나 아닌 것’에 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 . . ‘나’라는 오류를 깨달아야 할 것! . . .‘나’와 ‘너를 넘어서라! 우주적으로 느껴라!”(『니체전집 12』 424)라고 말한다. 우주적 생명체계로서 자연과 하나가 됨을 깨닫고(김정현 321), 나와 너를 넘어서 “우주적으로 느끼라”고까지 할 정도로 나와 너의 좁은 범위를 벗어나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니체의 생각은 니체의 주요한 개념인 ‘힘에의 의지들’

이 관계적이라는 주장과 연결된다. 니체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는 힘 감정이 생기는데 . . . 이 힘 감정이야말로 행위의 원인이며 그것이 힘 그 자체”(*WP* 350)이고, 이 “힘은 자신을 분출하고자 하고 창조하고자”(『니체전집 16』 467)하며, “생명체를 발견할 때마다 나는 힘에의 의지도 함께 발견했다. . . . 오직 생명이 있는 곳, 그곳에만 의지가 있다”(*Za* 137) 라고 표명하고 있다. 니체에 의하면 이러한 힘에의 의지가 바로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추동력이고 이러한 추동력이 없다면 어떤 행위, 생성도 가능하지 않으므로 니체는 “이 세계는 힘에의 의지다－그리고 그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역시 이 힘에의 의지다－그리고 아무것 아니다!”(*WP* 550)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힘에의 의지가 발현된 “세계는 본질적으로 관계 세계”(『니체 전집 21』 83)라고 말한다. 따라서 인간도 이러한 관계적 세계에서 힘에의 의지 작용들에 의해 세계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며 인간 내부 전체는 이러한 관계적 힘들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장소이다(백승영, 『니체, 철학적 정치』 129-30). 클러리사가 자신을 벗어나 자연이나 사물과 유기적인 관계성을 감지하며 친근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도 자신의 내부에서 바로 이러한 힘들의 상호작용을 느끼게 되는 순간일 것이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힘들의 관계 세계에서 생성으로서의 삶을 긍정하게 된다는 것은 고통조차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수반하는 것이다. 니체가 생성을 긍정하면서 “생성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애써왔다”(『니체전집 16』 314)고 했을 때, 생성은 “영원한 자기 창조와 영원한 자기 파괴”(『니체전집 18』 436)를 동시에 포함하는 모순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성을 긍정한다는 것은 “삶의 가장 낯설고 가혹한 문제들에 직면해서도 삶 자체를 긍정”하는 것이며 “공포와 동정을 넘어서 파괴시의 기쁨도 포함하고 있는 생성에 대한 영원한 기쁨 그 자체”(『니체전집 15』 393)를 긍정한다는 것이 된다. 그리고 니체는 이러한 고통을 극복하고자 “영원한 행복”을 준다고 가정되는 “참된 세계,” “모순 없는 세계,” “더 가치 있는 세계”를 상상하는 것은 오류이며, 이러한 세계는 형이상학자들이 상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니체전집 19』 399-400). 니체가 “대중을 위한 ‘플라톤주의’”(*BGE* 4)라고 불렀던 기독교도 형이상학자들이 이분법적으로 상상한 것에서 비롯된 초월적 세계의 종교에 불과하다. 그는 형이상학자들이 추구하는 오류와 상상에 불과한 ‘영원한 행복’ 대신, 행복은 “가장 깊숙하게 고통에 노출되어 있다는 조건하에서”(『니체전집 12』 674)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힘이

생겨나고 있다는, 저항을 극복하고 있다는 느낌"(*AC* 125)이라고 주장한다.

클러리사가 삶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행위도 이처럼 고통을 받아들이고 극복해나가며 자신을 창조해 나가는 행위를 통해 이뤄진다. 클러리사는 젊은 시절 그녀의 자매인 실비아(Sylva)의 때 이른 죽음을 목격한 뒤로 회의론자가 되었지만(77-78), 그 후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여 다시 삶의 한 가운데로 돌아와 피터(Peter Walsh)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늘 "삶을 풍부하게 즐겼고"(78), "자신의 거실을 일종의 모임의 장소로 만드는데 뛰어난 재능"(77)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피터는 그녀를 속물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녀가 "불굴의 생명력"을 지닌 여성으로서, 그녀 내부에는 "강함과 인내력,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승리하여 헤치고 나갈 수 있게 하는 힘으로 인해 그로서는 그 비슷한 것도 한 번 겪어본 적이 없는 생명의 가닥이 있다"고 느낀다(155). 이렇게 클러리사가 장애물을 극복하고 헤쳐 나가도록 하는 그녀의 불굴의 생명력은 "자기 보존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지배를 원하고, 더 많이 원하며 더 강해지기를 원하는 것"(*WP* 367)으로서 니체가 말하는 '힘에의 의지'의 발현인 것이다.

III

클러리사가 처한 여성으로서의 어려움은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강요하는 제한적이고 열등한 사회적 지위와, 자신의 독특한 섹슈얼리티를 규제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녀의 친구인 샐리(Sally Seton))와 함께 "결혼을 언제나 재난"(34)이라고 했고, "어떻게 세상을 개혁할 것인가"(33)를 토론했던 클러리사에게 결혼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욕망을 억압하는 커다란 요인이 된다.[5] 이 욕망은 그녀가 한때 샐리에게 느꼈던 "막 어른이 된 여인들 사이에서만 있을 수 있는"(34) 감정으로서, "신만이 아실 수 있는 어디에선가 체득한 망설임 때문"에 자신이 싫어했던 것이지만 "때때로 여인의 매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회상한다(31-32). 그녀가 싫어했고 망설였다고 하는 이 욕망은 계급적, 성적으로 안정된 자

5) 『댈러웨이 부인』에서 결혼과 여성 욕망의 억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졸고 "제국주의적 영국사회와 여성문제: 버지니아 울프의 『댈러웨이 부인』," pp. 5-29 참조.

신의 위상을 위협하는 것으로, 사회에서 비정상인 것으로 간주하는 성적 지향성이다. 그래서 그녀가 감히 겉으로 드러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인정할 수조차 없는 것이어서, 그녀는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가 설명한 "이성애적 우울증"의 상태를 경험했을 것이다.[6] 클러리사는 이제 "옛 감정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34)는데, 화자는 이런 클러리사가 "아이를 낳았는데도 보존되어있는 시트처럼 달라붙어 있는 처녀성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31)고 한다.

이렇게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부정해야 하고 한 남성의 아내로서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클러리사에게 자신의 개별성을 부정하여 "자신이 보이지 않게 된 것 같은" "더 이상 클러리사"아닌 고통을 수반한다(11). 그리하여 클러리사는 리처드(Richard Dalloway)와의 결혼 생활에서 "수녀처럼"느끼기도 하며, "삶의 한 가운데가 텅 비어 있다"고 느끼기도 한다(31). 그녀가 결핍한 것은 아름다움도 정신도 아닌 "무엇인가 중심이 되어 퍼져나가는 것, 그리고 어떤 따뜻한 것으로 표면을 부수고 남자와 여자 혹은 여자들의 차가운 접촉에 잔물결 일으키는 것이었다"(31). 클러리사는 한때 샐리에게 강하게 느꼈던 것과 같은 열정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감정적, 성적인 활력을 잃게 된다. 그리하여 그녀는 리처드와의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차가운 기운으로 여러 번 리처드를 "실망"(31)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녀는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새롭게 일어난다. 6월의 아침 진열장을 들여다보며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꿈꾸고" 있는 지, 자신이 "되찾으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심벌린』(*Cymbeline*)의 구절, "더 이상 태양열을 두려워 말라/ 또한 광포한 겨울의 사나움도"(9)를 떠올리는데, 이것은 클러리사가 실의에 빠져 불안할 때, 그것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되뇌곤 하는 것이다. 이 구절은 『심벌린』에서 헤어진 오빠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여동생 이모겐(Imogen)이 실제로 죽지 않았지만 죽은 걸로 이해하고

---

6) 버틀러는 규범적인 이성애 내에서 동성애적 애착은 수행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애초에 거부되어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욕망은 검열의 먼저쪽에서 드러날 때도 불가능성의 표시를 수반하기 때문에 동성애적 애착은 공개적으로 그 상실을 애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버틀러는 표명할 수 없는 자신의 섹슈얼리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죄의식과 자책을 프로이트의 우울증과 연결시키고, 동성애의 상실을 표현조차 할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 그 존재마저 부정하는 사회를 이성애적 우울증의 문화로 규정한다(141-47).

죽은 자는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하면서 그녀의 죽음에 대해 애도하는 말이다. 클러리사에게 이 애도의 표현은 한편으로 그녀의 영혼의 죽음과 같은 상태의 슬픔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런 슬픔을 뒤로 떠나보내고 다시 자신만의 삶을 조형하고자 하는 그녀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자신의 고유한 섹슈얼리티를 드러낼 수 없고 당대의 이데올로기가 요구하는 여성상에 과감히 맞서지는 못하지만, 클러리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표현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클러리사는 자연이나 사물과 유기적인 관계성을 감지하고 자신을 세계와의 관계성 속에서 파악한다. 이런 점은 울프의 에세이 「과거의 스케치」("A Sketch of the Past")에서도 나타난다.

> 솜의 이면에는 어떤 원형이 숨어 있고, 우리 즉 모든 인간들이 이 원형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세상 전체는 하나의 예술작품이고, 우리는 이 세상의 일부이다. . . . 그러나 거기에는 셰익스피어도 없고, 베토벤(Beethoven)도 없고, 결코 신도 없다. 우리가 말이고, 우리가 음악이고, 우리가 사물 그 자체이다. (72)

셰익스피어나 베토벤도 결국 유기적 세상의 부분이고 그들의 예술도 세계의 유기적 관계성을 통한 작용 속에서 생성된다는 울프의 이러한 생각은 니체의 생성 철학을 공유하는 클러리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도 유사하다. 따라서 클러리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유기적 관계성을 통해 서로 소통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파티를 베풀고자 하는 것인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파티를 준비하는 그날 오전 런던 거리에서 꽃을 사고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클러리사는 파티를 준비하는 집안의 분위기에서 신성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녀는 "집안의 홀이 둥근 천장이 있는 방(vault)처럼 시원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하녀 "루시의 치마 스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는 속세를 떠난 수녀처럼 느껴졌고, 자신을 감싸는 익숙한 베일과 오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느끼게 된다(29). 이 표현에서 "둥근 천장이 있는 방"은 뒤이어 나온 "수녀"라는 표현 때문에 성당의 홀을 연상시킨다. "수녀"라는 표현은 한편으로는 그녀의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연상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기도에 대한 응답"(29)에 강조점이 주어지고, 그녀의 파티를 준비하는 집안의 분위기에서 신성함이 느껴진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리고 이러한 신성함은 '집안의 천사'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클러리사는 파티를 준비하는 동안 집안에 있는 모든 생명

이 있는 것들이 유기적으로 파티를 위해 봉헌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그 순간 비록 "신을 믿지 않았"(29)지만 종교적 축복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신성함을 느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클러리사는 그녀의 파티를 집안의 모든 존재들이 함께 만드는 예술작품과 같은 것으로 느끼며, 그 작품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 클러리사는 이러한 신성한 느낌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클러리사는 "요리사가 부엌에서 휘파람을 불"거나 "타자기가 딸깍하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축복받은 듯이, 정화된 것처럼" 느끼고, 이러한 순간들이 "생명의 나무에 돋아난 새순 같"다고 혼자 중얼거린다(29). 그래서 그녀는 그날 밤의 파티를 준비하고 그 파티를 가능하도록 하는 모든 존재들, 즉 "하인들" 뿐 아니라 "개들과 카나리아들"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토대를 가능하게 한 "남편인 리처드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29). 그리고 "즐거운 소리들과 초록빛 불빛, 휘파람까지 불어주는 요리사"가 그녀를 기쁘게 하는 이 순간을 "황홀한 순간"(29)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클러리사가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 파티는 클러리사에게는 자신의 삶을 조형해 나가는 매우 의미 있는 행위이고 자신의 삶을 긍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행위이다. 그녀가 파티를 여는 것에 대해 남편인 리처드는 "심장에 안 좋은지 알면서도 자극을 좋아하는 것"(121)으로 생각하며, 친구인 피터는 "예리한 지성을 무디게 하고, 분별력을 잃게 하는"(78) 것으로서 "시간만 헛되이 낭비"(78)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한다. 그리하여 피터는 그녀가 "내세우는 것을 즐기"며 "속물"일 뿐이라고 비판하고(121),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늘 사람을 필요로 했다"(78)고 비난한다. 하지만 클러리사의 파티는 리틀턴(Littleton)도 지적했듯이 그녀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는데 성공"(52)하려는 속물적 의도에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클러리사가 사회적 성공보다 다른 면에 더 관심 있는 태도 때문에 어쩌면 브루톤 부인(Lady Bruton)은 "리처드가 덜 매력적인 여자와 결혼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여성이 그가 일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는 내각에 들어갈 기회를 놓쳤어"(179)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클러리사는 자신이 파티를 여는 이유를 리처드나 피터가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의 평가가 피상적이고 단편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122). 그녀가 파티를 여는 이유는 다만 삶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겠지만 베풀기 위해서라는 것이다(121). 끊임없이 사람들의 존재를 느꼈고, "그들을 서로 알게"하

기 위해 “파티를 여는 것”이며, 파티는 “베푸는 것이며, 결합시키는 것이며, 창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122). 클러리사가 사람들을 결합시키고 베푸는 것은 그녀의 “재능”이며 그녀에게 “그밖에 다른 것들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122)기 때문이다. 클러리사는 자신이 “사고하거나 글을 쓸 줄 몰랐고, 심지어 피아노 칠 줄 몰랐”고, “적도도 알지 못”(122)하며, 자신의 유일한 재능은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녀가 자신의 유일한 재능 외에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녀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클러리사는 “다니엘 양(Fräulein Daniels)이 주었던 몇 개의 곁가지에 지나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언어도, 역사도 아는 것이 없었다”(8)고 생각한다. 울프의 첫 장편 『출항』(*The Voyage Out*)에서도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젊은 여주인공 레이첼(Rachel)이 “세상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주제는 없었”고 “그녀의 정신이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초기의 지식인의 상태”(31)라고 언급되면서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에서 여성에게 제대로 된 지적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클러리사는 피터도 인정하듯 “표면 아래에는 아주 날카로웠”(75)고 “남편보다 두 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졌”(77)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파티에 초대된 허튼(Hutton)이 “예술에 관심이 있는 가문 좋은 숙녀들 가운데 댈러웨이 부인이 월등히 최고라고 언제나 느끼”(176)고 있다는 화자의 설명을 통해 예술에 관한 그녀의 식견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제대로 교육받지는 못했지만 “독학한 사람”(84)으로서 시를 쓰고 셰익스피어로 대변되는 영국을 구하려 참전했던(86) 셉티머스(Septimus Warren Smith)처럼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인용하는 클러리사는 문학적 교양이 깊어 보인다. 이러한 클러리사의 재능은 피터나 리처드와 같은 남성들과 달리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클러리사가 자신의 능력으로 노력해 얻은 것일 것이다. 피터가 보기에 이러한 그녀가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힘”(62)은 찬탄을 받을 정도다. 피터는 그녀의 이러한 능력 발휘에 대해 한편으로는 “완벽한 안주인”(62)이라고 놀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비상한 재능, 여성의 재능, 그녀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었다”(76)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터가 이렇게 클러리사의 능력을 모순되게 파악하는 이유는 그가 여성의 재능과 여성의 일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여 한편으로는 클러리사의 노동을 여성적인 일

로서 낮게 평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일을 수행해가는 그녀의 재능과 비상함으로 그녀가 만들어낸 세계와 그 재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울프의 『밤과 낮』(*Night and Day*)에서도 여주인공 캐서린(Katharine)의 상태에 대한 설명에서 드러난다. 화자는 힐버리(Hilbery) 집안의 외동딸인 캐서린이 "식사를 지휘하기, 하인들을 관리하기, 청구서의 대금을 지불하기, 그리고 모든 시계가 거의 정확하게 제시간에 시간을 알리도록 그렇게 잘 꾸려가는 것, 또한 다수의 꽃병에 항상 신선한 꽃들이 가득 차도록 하는 일"(44)과 같은 집안의 실제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것 뿐 아니라, 방문객들에게 차를 접대하고, 위대한 시인이자 외할아버지인 앨러다이스(Richard Alardyce)의 전기를 쓰는 어머니를 돕는 것, 그녀의 외할아버지의 유품들을 방문객들에게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과 같은 접대와 전기 쓰기를 보조하는 역할까지 도맡아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캐서린의 일은 집안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는 아주 힘겨운 일이므로, 화자는 캐서린이 "아주 중요한 직업을 가진 한 구성원으로 존재했는데, 이 직업은 아직 직함도 없고 그다지 별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이었다. 비록 제분소와 공장의 노동이 어쩌면 더 힘들지 않을 수도 있으며, 세상에 더 적은 이익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르지만"(44)이라고 설명하면서 사적 영역에서 여성의 일이 공적 영역의 일만큼 중요하고 힘든 일이라는 점을 주지시킨다. 마찬가지로 클러리사의 일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뿐 아니라 남편이나 피터가 이 일을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녀가 공들여 베푸는 행위인 파티 때문에 그녀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불굴의 생명력을 지닌 클러리사는 그들이 "전적으로 틀렸"고 그녀가 "사랑하는 것은 오직 삶"이라며 "그것이 파티를 여는 이유"라고 당당하게 "큰 소리로 삶을 향해 말"할 수 있는 것이다(121). 이렇게 클러리사가 당당하게 소리치며 파티를 여는 행위는 불굴의 생명력과 비상한 재능을 지닌 여성으로서 클러리사가 니체가 주장하는 자신의 힘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20세기 초반 기혼 여성으로서 클러리사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얻는 것은 힘든 일이고[7], 이런 클러리사가 브루톤 부인처럼 권력과 사회적 성공을 욕망하여 성공한 정치인의 아내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예술에 관

---

7) 1919년 12월 23일에 성별 직업 제한 철폐법이 제정됨으로써 여성들에게 예비적으로 모든 남성 전문직, 특히 법률 전문직이 개방되었다(Sohn 115). 이미 중년에 접어든 기혼여성 클러리사에게는 너무 늦은 기회인 것이다.

한 식견이 뛰어나고 문학적 교양도 높지만 그녀는 중상층 가정의 부인으로서 자신만의 독립된 삶을 온전히 누리면서 그 사회가 당대 여성에게 요구하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벗어나지도 못한다. 피터처럼 “사회적 인정이나 자신의 경력으로부터 자유를 허용 받는 남성들이 갖는 독자적인 사회적 위치”를 누리거나 셉티머스처럼 극단적으로 “광기”를 드러내며 시를 쓰는 예술적 행위도 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순응”만을 요구받으며 자신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클러리사와 같은 계층의 여성에게(Littleton 51) 파티는 클러리사가 자신의 힘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가 된다. 니체는 고통을 극복하여 힘이 생기고 있다는 느낌으로서 “행복이 가져오는 효과가 힘의 감정”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든 다른 인간에 대해서든 표상에 대해서든 상상의 존재에 대해서든 이러한 힘의 감정은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흔한 방식” 중 하나가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D* 166). 클러리사에게 이러한 선물, 베푸는 것으로서 파티는 바로 자신의 힘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클러리사가 파티를 통해 사람들을 서로 알게 하고, 베풀고, 창조하고, 결합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녀가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 즉, 세계의 유기적 관계성에 대해 느끼고 있는 그녀의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8] 그녀는 사람들이 그녀의 파티에서 서로 소통하며 서로간의 유기적 관계성을 느끼는 순간을 창조하려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파티를 통해, 니체의 영향을 받은 들뢰즈(Gilles Deleuze)와 가타리(Félix Guattari)가 말하듯 서로 다른 존재들이 결연 관계를 통해 상호 이질성을 가로지르며 소통을 이루고 전염되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변형시킬 수 있는 생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238-39).

클러리사가 파티를 여는 이유인 “베풀기 위해서 베푸는”(122) 행위는 니체에 의하면 “주인의 도덕”을 지닌 “고귀한 부류의 인간”의 특성이다. 고귀한 인간은 “가치를 창조하는 자”이며, “그 전경에는 충만한 감정과 넘쳐흐르고자 하는 힘의 느낌, 고도로 긴장된 행복과 베풀어주기를 원하는 부유함의 의식”이 있는 자이다(*BGE* 153-54). 클러리사가 파티를 통해 베푸는 행위는 힘에의 의지의 특성인 “창

8) 리틀턴은 클러리사의 외로운 생활과 죽음을 연결시키고 클러리사의 개인적 죽음에 대한 해법이 집단적 경험의 불멸성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녀의 파티가 이러한 집단적으로 공유된 경험에 기반을 둔 집단적 존재를 강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38-39, 41-42). 하지만 필자는 클러리사가 이러한 집단적 존재에 대한 경험보다 니체가 말하는 세계의 유기적 관계성에 대해 느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조적이고 주는 것”(Deleuze 85)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제공”(Deleuze 85)함으로써 자신의 힘에의 의지를 발현하고 있는 것이다. 피터가 그날 밤 파티에서 클러리사에 대해 느끼는 것이 바로 클러리사가 주는 충만한 힘의 느낌인 것이다. 이와 같은 힘의 느낌으로 인해 피터는 그날 밤 파티에서 클러리사를 바라보며 그녀는 “지나가면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집약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을 자신의 고유 영역에서 우아하게 움직이는 사람의 태도로 했다”(174)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에게 그런 클러리사는 “두려움”과 “황홀함,” 그리고 “이상한 흥분”을 주고, 피터는 “거기에 그녀가 있었다”라고 강하게 그녀의 존재감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194).

그런데 사람들을 서로 결합시키고자 하는 클러리사의 파티에 그녀와 가까운 인물이 초대받지 못했다거나 혹은 참석을 거부한다는 사실은 그녀의 파티의 결합하고 베푸는 성격과 모순되어 보일지도 모른다. 클러리사의 딸 엘리자베스(Elizabeth Dalloway)의 가정교사인 도리스 킬먼(Doris Kilman)은 파티에 불참하고 클러리사의 사촌인 엘리 핸더슨(Ellie Henderson)은 처음에는 파티에 흔쾌히 초대받지 못한다. 킬먼은 엘리자베스가 파티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결코 파티에 가지 않아요”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나를 파티에 초대하지 않아요”라고 말하지만(132), 클러리사가 실제로 초대하지 않았는지는 불분명하다. 클러리사는 킬먼이 가정교사로서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영혼을 제압하려고 하는 경직된 사고로 인해 “영혼의 자유를 파괴”(126-27)한다고 생각하여 흔쾌히 킬먼을 초대할 마음이 없었을 지도 모른다. 한편 클러리사는 사촌인 엘리 핸더슨을 처음에는 초대하지 않지만 결국 나중에 초대하게 된다. 클러리사는 엘리가 가난한 사촌이라는 점보다 “점점 약해져 서서히 사라져 가느니 차라리 아무 일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횃불을 휘두르다 그것을 땅바닥에 내던지는 게 나았다”고 생각하면서 “구석에 무리지어 자신을 똑바르게 지키려고 조차 않는”(168) 엘리의 당당하지 못한 태도, 자신의 힘에의 의지를 능동적으로 발현하지 못하는 태도를 못마땅해 하는 것이다. 반면에 예전에 샐리는 가난하여 “부어톤(Bourton)에 오기 위해서 마리 앙트와네트(Marie Antoinette)가 증조할아버지에게 준 할머니의 반지를 저당 잡혀야 했고 . . . 그녀의 이름으로는 한 푼도 없어서 부어톤에 가는 일은 그녀가 끔찍하게 쪼들리는 것을 의미했”(188)지만, 클러리사는 샐리의 “대담하고 무모”(182)할 정도로 당당한 면과 그녀의 그런 “생명력”(181)을 숭배했던 것이다. 클러리사는 타

인의 영혼을 제압하려 하거나 스스로에게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현하지 못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다소 냉정하게 반응하는 면이 있는 것이다.

한편 클러리사는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여 자신의 삶을 조형해가는 불굴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지만, 브루톤 부인의 파티에 초대 받지 못해 한 순간 낙담하기도 한다. 파티를 준비하는 즐거운 소리를 들으며 잠시 황홀한 느낌에 빠졌던 클러리사는 브루톤 부인이 자신을 오찬에 초대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또다시 "생명이 사그라드는 것"(30)처럼 느끼며 고통 받는다. "자신이 들어서면 사람들이 즐거워하기를"(10) 강하게 원했고, "거실로 들어가는 복도에서 . . . 자주 황홀한 서스펜스를 느꼈"던 클러리사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의 색채와 짠맛과 음조"로 "자신이 들어서는 방안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30).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히 재미있다고 소문난 오찬파티"(31)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녀가 사람들 사이의 소통의 공간에서 배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두려워 말라. . . . 더 이상 여름의 태양을 두려워 말라"(30)는 읊조림은 그녀의 이러한 상실감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다락방에 홀로앉아 이러한 상실감과 고통에 맞선다. 그녀가 젊은 시절 부어톤에서 자유분방한 샐리와 더불어 인생과 세상의 개혁을 논했던 추억과 비록 샐리와의 우정에 적개심을 보이긴 했지만 자신을 좋게 평가해주기를 원했던 피터에 대한 생각이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준다. 그녀의 젊은 시절 두 친구에 대한 기억과 부어톤에서 보낸 시절에 대한 기억은 현재의 그녀의 삶에 활력과 생명력을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힘들의 관계로 작용하면서 그녀의 힘에의 의지가 "전진하는 것을 의욕하고 그 앞길을 막는 것을 부단히 극복"(*WP* 370)하게 한다. 클러리사는 그 순간 브루톤 부인의 파티에 초대 받지 못한 상실감과 무력감을 극복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그녀가 창조해 나가야 할 삶을 새롭게 맞이한다. 그녀는 다시 삶의 활력을 회복하고 새롭게 스스로를 조형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 쉰둘이 되었고 아직 쉰둘의 많은 나날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유월, 칠월, 팔월! 하나하나의 달이 여전히 거의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떨어지는 방울을 잡으려는 듯이 클러리사는 . . . 그 순간의 심장부로 뛰어들어 그 순간을 거기에 고정시켰다—이 유월의 아침의 순간을. . . . 거울, 화장대, 그리고 모든 화장품 병들을 새롭게 보며 그녀의 전 존재를 한 점에 모았다. (36-37)

IV

젊은 시절의 클러리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샐리의 영향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 눈을 떴고 샐리와 함께 플라톤(Plato),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와 셸리(Percy Bysshe Shelley)의 글을 읽으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을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했고, "사유 재산을 폐지하는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었다"(33). 피터가 기억하기에도 그와 클러리사는 수마일 도보로 여행하는 동안 "내내 논쟁을 벌이고, 시를 논하고, 사람들을 논하고, 정치를 논했"으며, 피터는 그런 클러리사를 "급진주의자"로 기억한다(154). 이처럼 젊은 시절 사회와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클러리사는 남편인 리처드가 그녀에게 선물로 준 장미를 바라보며 리처드가 관여하고 있는 아르메니아인의 문제를 알바니아인의 문제로 혼동하며, "아르메니아 사람들 문제보다 자신의 장미가 훨씬 더 좋았다. 사냥당해서 말살당할 지경에 이르렀고, 불구가 되었고, 얼어 죽었으며, 잔혹함과 부당함의 희생자들"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다"고 고백한다(120). 젊은 시절 급진적이었던 클라리사가 이제는 정치적으로 무관심해 보이는데, 트루디 테이트(Trudi Tate)는 그 당시 주요 논란거리가 되고 있던 주요 정치적 쟁점에 대해 무지한 클라리사와 같은 지배계층의 여성들이 울프의 공격 대상이라고 지적한다(168). 테이트는 이러한 여성들이 제공하는 가정적이고 사회적인 기반이 부당한 정치 체계가 기능하도록 하는데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166).

물론 클러리사의 정치적 무관심 혹은 무지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화자는 클러리사가 "사고하거나 글을 쓸 줄도 몰랐고, 심지어는 피아노를 칠 줄도 몰랐다. 그녀는 아르메니아 사람들과 터키 사람들을 뒤죽박죽 혼동했다. . . .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녀에게 적도가 무어냐고 물으면 그녀는 알지 못했다"(122)라는 설명을 통해 클러리사가 사회적, 역사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화자는 이러한 비판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에 설명하겠지만, 어쩌면 비판의 대상이 다른 곳, 즉 영국 정부나 정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부분은 마치 클러리사가 스스로 자신을 비판적으로 드러내는 내면적 독백인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클러리사는 자신이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클러리사 본인의 목소리를 통해 그런 점이 직접 표출

되지는 않는다. 클러리사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녀의 파티에서 셉티머스의 자살 소식을 접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스스로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클러리사가 아르메니아인보다 장미가 훨씬 더 좋았다고 토로하는 한 가지 이유는 리처드가 선물로 준 장미가 그녀에게 그 순간 특별한 의미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 장미는 "이삼년 전에 준 팔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선물한 적이 없었"(114)던 리처드가 처음으로 클러리사를 위해 마음먹고 선물한 것이었고, 결국 리처드가 말로 직접 표현하지 못한 "당신을 사랑해"(115)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순간은 클러리사가 리처드의 사랑에 대해 잠시 몰두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인 것이다. 클러리사와 대조적으로 결혼하여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케리 뎀스터(Carrie Dempster)와 같은 여성에게 이러한 특별한 감정은 누리기 어려운 경험인 것으로 드러난다. 뎀스터 부인은 장미를 냉소적으로 "다 쓰레기야"(27) 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아직 어린 처녀로 보이는 메이지 존슨(Maisie Johnson)에게 마음속으로 "동정해 달라고 애원"하며 "장미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동정을"(27) 갈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뎀스터 부인에게 장미는 젊은 시절의 사랑과 낭만적인 감정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녀의 힘든 결혼생활 속에서는 사치에 불과한 부질없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녀가 잃고 싶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클러리사의 결혼생활은 뎀스터 부인과는 다른 차원의 힘든 삶일 수 있다. 비록 경제적으로 힘든 삶은 아니겠지만 정치인의 아내라는 역할은 대단히 힘든 일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대개 빅토리아조와 에드워드조의 정치인의 아내들은 아내와 어머니라는 역할 외에도 정치적 모임에서 여주인 역할과 집안의 안주인 역할을 하면서 남편의 일과 사회적 성공을 돕는 일을 했는데, 특히 규모가 큰 집안의 안주인 역할은 매우 부담이 크고 힘든 일이었다.[9] 집안을 돌보는 직원들이 끊임없이 이동하는 규모가 큰 집안을 관리하는 일은 상당히 큰 사업을 하는 일에 비견되었다(Jalland 189-90). 규모가 큰 파티를 준비하는 클러리사를 보며 피터는 "이 모든 잘난체 하는 일들이 리처드의 소행"이며 "그와 결혼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클러리사가 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43). 이런 일들을 클러리사가 '불굴의 정력'으로 처리해가는 모습이 피터에게는 "그녀의 체력은 고갈

9) 쉰 두 살의 클러리사는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에드워드 시대를 보냈다.

되어갔다. 그녀와 같은 부류의 여인네들이 유지해야만 하는 모든 그런 끝도 없는 왕래들"(77)로 보이는 것이다. 클러리사는 그녀 특유의 재능으로 『밤과 낮』의 캐서린이 말하듯 노동자들의 일보다 더 힘들 수 있는 힘겨운 집안일들을 잘 처리해 나갔다. 그런데 클러리사는 결혼생활에서 자신만의 "다소 독립된 부분"(7)을 고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공유"(8)해야 하는 피터가 아니라 리처드와 결혼했고, "리처드는 그것을 그녀에게 주었고, 그녀 또한 그에게 주었다"(8)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리처드와의 결혼생활에서 피터와 결혼했더라면 누릴 수 있었을지도 모를 "들뜬 기분"(47)은 접하기 어려운 것이다. 피터가 그날 오전에 클러리사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그런 들뜬 기분을 잠시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 클러리사에게 리처드가 선물한 장미는 그녀에게 뎀스터 부인이 한편으로 동경한 낭만적 사랑의 감정을 잠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결혼생활에 생기를 주는 선물이어서, "하루에 다른 날이 잇따르고 . . . 아침에 일어나야 하고, 하늘을 보고, 산책을 나가"(122)는 일견 평범해 보이는 하루하루의 삶에 갑자기 장미가 나타나자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순간을 얼마나 사랑하는 지 . . ."(122) 다시금 깨달으며 그 순간을 긍정하게 되는 것이다.

『댈러웨이 부인』에서 아르메니아인이 겪은 참상에 대한 언급에서 필자는 화자가 클러리사에 대한 비판에 미묘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했는데, 역사적, 정치적으로 주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리처드를 포함한 영국 정치인, 그리고 영국 정부에 좀 더 강하게 비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국이 아르메니아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일에 대해 배신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테이트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1920년부터 1923년에 걸쳐 이뤄진 로잔 평화회담(Lausanne Peace Conference)에서 터키 지배하에 있는 아르메니아인을 포함한 소수민족들을 보호하는 문제에 영국 정부도 지지의사를 밝혔는데,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23년에 체결된 로잔 조약(Lausanne Treaty)에서 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터키에 잔류한 아르메니아인들을 터키의 통치하에 두게 함으로써 아르메니아인들에게 독립된 영토를 부여하려 했던 시도를 철회하는 배신행위를 하게 된다(Tate 171). 이로써 영국은 1878년 산스테파노 조약(Treaty of San Stefano)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의 영토와 주민을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두겠다는 내용에 동의했으나, 이러한 처리가 그 지역에 관한 자국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 조약을 수정하여 아르메니아인들의 영토를 다시 지금의 터키인 오토만 제국

내에 두게 했던 결정이후 아르메니아인들에게 두 번째의 배신행위를 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오토만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된 아르메니아인들은 1890년대 오토만 제국에 의해 대량으로 추방당하거나 학살당했으며, 1915년 1차 대전 중에는 거의 80만에서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대학살극의 희생자가 되었다(Tate 169). 영국의 전시 내각의 연립 정부 수상이었던 로이드 조지(Lloyd George)는 이러한 아르메니아인들의 대학살에 영국이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논평 했다(qtd. in Tate 169). 울프는 클러리사가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던진 말을 통해 당대 영국 정부와 정치인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런던 거리에서 목격되는 부당한 처우를 당한 시민의 저항 행위나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시민의 모습을 통해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런던 거리를 거니는 셉티머스는 "플래카드 위에 잔악 행위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 . . 남자들이 광산에 갇혔고, 여자들이 산 채로 불탔다"(90)는 것을 알리는 화물차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다(90). 클러리사의 딸 엘리자베스는 "실업자들의 트럼펫 소리가 소란 속에서 덜커덩 소리를 내며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군악대인양, 마치 사람들이 행진하는 것 같은"(138) 장면을 목격한다.[10] 보울리 씨(Mr. Bowley)는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하는 "여왕이 지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가난한 여인네들, 착한 어린 아이들, 고아들, 과부들"(20)의 모습에서 그들의 고단한 삶의 흔적을 읽는다. 이와 같은 가난한 국민에 대해 엘리자베스는 "만약에 위원회에 참석하고 매일매일 수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 . .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면 그녀의 아버지가 그 일을 했다"(136)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아르메니아인과 같은 소수 민족을 보호하는 일을 영국 정부가 외면한 예에서 드러나듯 엘리자베스가 매일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의회의 위원회나 정부가 하는 일이 반드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

10) 로이드 조지의 연립정부는 "1919-20년에 광부, 철도원 그리고 많은 다른 노동자들의 (심지어 경찰도 포함하여) 전국적 파업을 취급하면서 군대를 파업파괴자로 이용하는가 하면 비상대권을 이용하는 등 거친 방법을 동원했다. 그 후 정부는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오랜 산업지역들이 황폐화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리고 "광산 국유화계획에 있어서 광부들을 명백히 기만했고" "광산, 철도, 운수 노동자들이 맺은 '삼자동맹'의 기반을 한층 더 위태롭게 함으로써 또다시 광부들을 실망시킨 일과 같은 사건들이 노동계급의 의식 속에서 잊혀 지지 않고 있었다"(Morgan 597).

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하고 억압적인 면은 무엇보다도 참전군인인 셉티머스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1차 대전에 참전한 셉티머스와 같은 전쟁 신경증 환자는 런던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윌리엄 브래드쇼 박사(Dr. William Bradshaw)가 찬양하는 영국을 번성하게 한 "균형(proportion)"의 논리에 의해 통제된다. 브래드쇼 박사가 자신과 영국을 번성하게 하였다고 찬양하는 균형은 사회 내의 차이와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는, 제국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억압적인 사회적 가치에 다름 아니다. 제국주의의 심화로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와 언론이 서로 공모하여 젊은이들에게 애국심을 북돋으며 셉티머스와 같은 젊은이들을 전쟁 속으로 끌어들였지만(Levenback 13), 전쟁이 초래한 그와 같은 신경증 환자는 균형감각을 갖지 못해 사회적으로 "부적격자"(99)이고 "비사회적인 충동"(102)을 가진 자로서 엄격히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이 균형의 논리에 의하면 균형을 잃은 셉티머스는 "격리" 되어야 하고, 그의 "절망"은 벌 받아야 할 일이다(99). 시인이 되고 싶어 소년이었을 때 고향을 떠나 런던으로 온 셉티머스는 결국 사회로부터 버려진 "낙오자"(89)로 대접받을 뿐이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에게 자유보다는 복종을 강요하는 국가는 신앙을 대신하는 "새로운 우상"(76)이라 칭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는 "'나, 국가가 곧 민족'이라는 거짓말"(75)을 스스럼없이 주장하며 애국심을 부추긴다고 말한다.

> 너희들이 그에게 경배만 한다면 이 새로운 우상은 너희들에게 무엇이든지 주려한다. 국가는 이렇게 하여 너희들의 덕의 광채와 자랑스러운 눈길을 매수한다. . . . 거룩한 영예로 치장을 하고는 쩔렁쩔렁 방울소리를 내는 죽음의 말(馬)이 고안된 것이다. (76)

그리하여 니체는 수많은 영웅과 전사들이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치게 하여 "모든 백성이 독배를 들어 죽어가는 곳"(*Za* 77)이 국가라고 주장하며, "제도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악의에 이를 정도로 반자유주의적인 의지와 본능과 명령이 있어야 한다"(*TI* 103)고 말한다. 울프가 클러리사와 꼭 닮은 짝(double)으로 설정한[11] 셉

11) 울프는 1928년 현대 전집판본의 『댈러웨이 부인』 서문에서 셉티머스가 클러리사와 꼭 닮은 짝으로 설정했다고 밝히고 있다(Bradshaw 21).

티머스는 국가의 제도가 요구하는 것에 복종하고 국가가 본능적이 되도록 북돋은 애국심에 의해 참전하여 자신의 국가인 영국을 위해 헌신했지만, 사회의 부적격자, 낙오자로 인식 되고, 결국 시를 쓰며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해내지 못한다. 그는 "해야만 한다"(147)를 강요하는 사회체제에서 클러리사와 달리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일을 더 이상 해내지 못한 채, 생을 중단하기를 원한다. 그는 자신의 생을 마감하며 "그는 온전히 혼자였고, 저주 받았고, 버림받았기에 . . . 사치스러운 즐거움이 있고 숭고함이 넘치는 고독이"(92) 있는 죽음을 앞둔 채 마지막으로 자신의 글을 쓴다. 힘겨울 땐, 아내인 레지아(Rezia)에게 받아 쓰게 하는데, 그가 쓴 종이쪽지들에는 "죽은 자들이 보낸 메시지 . . . 수상에게 이야기해줘요. 우주적인 사랑, 세상의 의미"(148)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이 우주적인 의미는 수상에게 전해지지 않는다. 수상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멀리 있는 존재이고, 따라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경외감을 표시하는 수상이나 여왕은 작품의 초반 군중 속을 지나쳐 가는 알 수 없는 자동차 안에 있는 인물처럼 다만 시민들을 스쳐 지나가며 그들과 잠시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런데 『댈러웨이 부인』에서 셉티머스와 클러리사의 우연적 만남은 클러리사가 새롭게 자신을 조형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의 순간이 된다. 사실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는 일이 없이, 다만 클러리사가 그녀의 파티에서 셉티머스의 자살 소식에 대해 듣게 되면서 두 사람의 간접적인 만남이 이뤄진다. 하지만 이러한 우연한 만남이 클러리사를 셉티머스라는 "미지의 세계"(*D* 72)와 조우하게 하여 그녀에게 새로운 변화를 끌어낸다. 비록 클러리사가 삶을, 순간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클러리사가 생각하듯 매순간 삶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은 매순간 새로운 실험이고 "매순간 존재가 시작"(*Za* 234)되는 것이므로, 니체가 삶을 위험 속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처럼(*UM* 144), 클러리사도 "단 하루일지라도 산다는 것이 아주, 아주 위험하다는 느낌을 언제나 갖고 있었다"(8). 그래서 파티를 여는 유월의 아침에 삶에 대해 환희를 느끼기도 했지만, 셉티머스의 죽음에 대해 들으며 그날 아침 "공포감"과 "무력감"이 밀려왔다는 것을 기억해낸다(185).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은 "시시한 이야기에 둘러싸여서, 외관이 흉하게 되고, 그녀의 삶 속에서 빛을 잃게 되어, 매일 매일을 부패와, 거짓말과, 잡담 속으로 떨어져 내리"(184)고 있다고 느끼며 자신의 힘에의 의지가 능동적으로 발현되지 못하고 퇴락하는 면에 대해 감지한다. 그렇지만 셉티머스의 "죽음은 도전"이고 "의사소통하려는 시도"(184)라

고 생각하며, 또한 그의 죽음이 “자신의 불행,” “그녀의 수치”이고, 그것이 “그녀에게 내린 벌”이라고(185), 자신이 “온전히 훌륭했던 적이 없었다”(185)고 반성한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되었듯이 그녀에게 생명력과 활기를 주는 “부어톤에서 테라스 위를 거닐었”(185)던 때의 순수하고 생명력 넘치던 시절을 기억해 내고, 바로 이 순간 그녀의 생명력 넘쳤던 과거와 새롭게 창조해 나가야 할 미래가 충돌하면서 그녀의 힘에의 의지를 발현시킨다. 그리하여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 말라, 여름의 열기를”(186) 이라는 구절을 암송하며 자신이 “자살한 청년 같다고” 느낀다(186). 그리고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무시무시한 두려움”과 “공포감”(185)을 극복하고 이제 자살한 청년을 “더 이상 동정하지 않”(186)게 된다. 클러리사는 셉티머스의 자살 소식을 접하면서 힘의 관계 속에서 “영향 받을 수 있는 능력”(Deleuze 62)인 그녀의 힘에의 의지가 “자신과 유사한 것의 근접을 느끼”(qtd. in Deleuze 63)게 되는 “파토스”[12]의 상태에서 자신을 비판하고 고통스럽게 느끼지만, “모든 것이 부서졌다, 모든 것이 다시 결합되는”(*Za* 234) 생성의 과정을 긍정하면서 다시 삶을 긍정하게 된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삶의 가장 낯설고 가장 가혹한 문제들에 직면해서도 삶 자체를 긍정”(『니체전집 15』 393)하는 것이며, 니체가 주장하는 “운명애”(amor fati)[13]와 같은 것이 된다. 이렇게 삶을 긍정하게 된 클러리사는 짜라투스트라가 “그것이 생이었던가?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Za* 178)이라고 외치듯 다시 파티에 모인 사람들에게 돌아가 자신의 삶을 조형하게 된다.

---

12) 니체는 힘에의 의지에 대해 ‘파토스’라는 명칭을 부여하기도 한다. 힘에의 의지가 의지 작용이자 충동 작용이며 ‘아펙트’(Affect)라는 것, 그리고 힘에의 의지의 활동을 기존의 철학적 용어를 가지고 적합하게 설명해 낼 수 없기 때문에 니체는 파토스라는 용어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백승영,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 338). 니체는 『유고』에서 힘에의 의지가 “존재도 아니고 생성도 아니다. 오히려 파토스이며, 생성과 작용이 그 안에서 비로소 생겨나는 가장 원초적인 사실이다”라고 주장한다(『니체 전집 21』 69).

13) 니체는 “삶에 디오니소스적으로 마주 선다는 것－: 이것에 대한 내정식이 운명애(amor fati)다”라고 말한다(『니체전집 21』 355).

V

『댈러웨이 부인』에서 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소수민족의 권익을 저버릴 수 있는 제국주의적 사회이고, 그러한 사회를 이끄는 핵심적인 지도자들은 런던의 창공 위로 선전 광고를 알리는 비행기처럼 대중들을 멀리서 조작할 뿐 대중들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억압적인 여성의 현실이나 전쟁 후 신경증을 앓는 참전군인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들이나 셉티머스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시민들이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울프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는 니체가 말하는 "주권적 개인"[14]이 회복될 수 있는 사회이다.

이런 주권적인 개인은 니체가 비판하듯 자기극복을 통한 자기창조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모험 없는 안락, 자기보존만을 유지하는 평균인, 대중인, 무리로 살아가며 자신에게서 소외되어 "자기-왜소화"(*BGE* 163)된 존재와는 거리가 멀다. 이른바 지배계층에 속하는 "영국 사립학교의 완벽한 표본"(73)인 속물적인 휴(Hugh Whitbread)나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 앙심을 파묻어 두고"(97) 균형감각의 논리에만 함몰된 브래드쇼와 같은 인물은 주권적 개인과 거리가 먼 인간이다. 또한 선량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점잖은 사람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읽어서는 안된다"(75)고 말하는 리처드는 상상력과 이해력이 부족하여 인습적 생각의 틀을 깨고, "보다 많은 위험에 부딪히고, 보다 생산적인 인간, 보다 행복한 인간"으로서 "위험하게 사"(*GS* 228)는데 역부족인 정치인이다. 한편 킬먼과 같은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독신 여성도 비록 대학 학위를 받았고 상당한 수준 이상의 지식을 지니고 있지만(132), 그녀의 종교에 대한 집착과 클러리사와 같은 타인의 영혼을 제압하여 상상의 보복[15]으로 보상을 얻으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댈러웨이 부인』에서 울프가 주목하는 개인의 자기창조는 니체가 주장하듯

---

14) 니체의 설명에 따르면, "주권적 개인은 오직 자기 자신과 동일한 개체이며, 관습의 도덕에서 다시 벗어난 개체이고, 자율적이고 초윤리적인 개체 . . . 즉 간단히 말해 약속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자기 자신의 독립적인 부단한 의지를 지닌 인간이다"(*GM* 59).

15) 니체는 "실제 행동으로 반발할 수 없는 사람들의 원한은 오직 상상의 보복으로 보상될 수 있다"고 이러한 사람들의 노예도덕을 비판한다(*GM* 36).

세계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낡은 가치를 파괴하고 새로운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려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가치의 창조는 새로운 실험을 수반하므로 "생활방식을 변화시켜야 하는 수천 가지 실험"(『니체전집 16』 881)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작업일 것이다. 삶 자체가 이러한 실험의 연속이므로, 이런 실험의 위험을 두려워하고 나태하게 "더 이상 원하지도 않고, 더 이상 평가하지도 않고, 더 이상 창조하지도 않"고(*Za* 111),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것을 원"한다면 "누구든 다르게 느끼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으로"(*Za* 46) 갈 정도의 피로하고 평균성만을 추종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브래드쇼 박사가 권하는 균형감각도 바로 이러한 평균성에 복종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생성을 긍정한다는 것은 이러한 실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여 생성으로서의 삶 자체를 긍정하고 부단히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클러리사는 이러한 평균성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인물이며, 그녀가 생성의 순간으로서 삶을 긍정하며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 일은 니체가 말한 조각가의 과제에 비견되는 예술가의 작업인 것이다.

(연세대)

인용문헌

김금주. 「제국주의적 영국사회와 여성문제: 버지니아 울프의 『댈러웨이 부인』」. *SESK,* 7호, 2004, pp. 5-29.

---. 「울프의 『파도』에 나타난 자기 창조의 문제: 니체의 '생성'을 중심으로」. 『제임스 조이스 저널』, 18권 1호, 2012, pp. 125-48.

김정현. 『니체, 생명과 치유의 철학』. 책세상, 2006.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전집 11: 유고(1880년 초~1881년 봄)』. 최성환 옮김, 책세상, 2004.

---. 『니체전집 12: 즐거운 학문/ 메시나에서의 전원시/ 유고(1881년 봄~1882년 여름)』. 안성찬·홍사현 옮김, 책세상, 2005.

---. 『니체전집 15: 바그너의 경우·우상의 황혼·안티크리스트·이 사람을 보라·디오니소스 송가·니체 대 바그너』. 백승영 옮김, 책세상, 2002.

---. 『니체전집 16: 유고(1882년 7월~1883/84년 겨울)』. 박찬국 옮김, 책세상, 2001.

---. 『니체전집 18: 유고(1884년 가을~1885년 가을)』. 김정현 옮김, 책세상, 2004.

---. 『니체전집 19: 유고(1885년 가을~1887년 가을)』. 이진우 옮김, 책세상, 2005.

---. 『니체전집 20: 유고(1887년 가을~1888년 3월)』. 백승영 옮김, 책세상, 2000.

---. 『니체전집 21: 유고(1888년 초~1889년 1월 초』. 백승영 옮김, 책세상, 2004.

백승영.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책세상, 2005.

---. 『니체, 철학적 정치를 말하다: 국가, 법, 정의란 무엇인가』. 책세상, 2018.

Berman, Marshall. *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 The Experience of Modernity*. Penguin Books, 1988.

Bradbury, Malcolm and James McFarlane. "The Name and Nature of Modernism." *Modernism*. Penguin Books, 1983, pp. 19-55.

Bristow, Joseph. *Sexuality*. Routledge, 1997.

Butler, Judith. *The Psychic Life of Power*. Stanford UP, 1997.

Deleuze, Gilles. *Nietzsche and Philosophy*. Translated by Hugh Tomlinson, Columbia UP, 1983.

Deleuze, Gilles, and Fé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Translated by Brian Massumi, U of Minnesota P, 2000.

Forster, John Burt. *Heirs to Dionysus: A Nietzsche an Current in Literary Modernism*. Princeton UP, 1981.

Heidegger, Martin. *Nietzsche, Volume II: The Eternal Recurrence of the Same*. Translated by David Farrell Krell, HarperCollins Publishers, 1984.

Jalland, Pat. *Women, Marriage and Politics 1860-1914*. Oxford UP, 1986.

Kent, Susan Kingsley. *Gender and Power in Britain, 1640-1990*. Routledge, 1999.

Kuna, Franz. "The Janus-faced Novel-Conrad, Musil, Kafka, Mann." *Modernism*. Edited by Malcolm Bradbury and James McFarlane, Penguin Books, 1983, pp. 443-52.

Levenback, Karen L.. *Virginia Woolf and the Great War*. Syracuse UP, 1999.

Littleton, Jacob. "Mrs. Dalloway: Portrait of the Artist as a Middle-aged Woman."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vol. 41, Spring 1995, pp. 284-309.

Morgan, Kenneth O.. *The Oxford History of Britain*. Oxford UP, 2010.

Nietzsche, Friedrich. *Beyond Good and Evil*. Translated by Judith Norman, Cambridge UP, 2002.

---. *Daybreak*. Translated by R. J. Hollingdale, Cambridge UP, 1990.

---. *On the Genealogy of Morals and Ecce Homo*. Translated by Walter Kaufmann, Random House, Inc., 1967.

---. *The Gay Science*. Translated by Walter Kaufmann, Vintage Books, 1974.

---. *Thus Spoke Zarathustra*. Translated by R. J. Hollingdale, Penguin Books, 1969.

---. *The Will To Power*. Translated by Walter Kaufmann, Vintage Books, 1968.

---. *Twilight of the Idols and The Anti-Christ*. Translated by R. J. Hollingdale, Penguin Books, 1990.

---. *Untimely Meditations*. Translated by R. J. Hollingdale, Cambridge UP, 1983.

Peach, Linden. *Virginia Woolf*. St. Martin's, 2000.

Showalter, Elaine. *Sexual Anarchy: Gender and Culture at the Fin de Siècle*. Viking, 1990.

Sohn, Ann-Marie. "Between the Wars in France and England." *A History of Women in the West*. Edited by Françoise Thébaud, vol. 5, Harvard UP, 1994, pp.

92-119.

Tate, Trudi. *Modernism, History and the First World War*. Humanities-Ebooks. LLP, 1998.

Woolf, Virginia. "A Sketch of the Past." *Moments of Being*, edited by Jeanne Schulkind, Harcourt, Inc., 1985, pp. 64-159.

---. Introduction: A Well of Tears. *Mrs. Dalloway,* by David Bradshaw, Oxford UP, 2000, pp. 11-45.

---. *Mrs. Dalloway*. 1925. Harcourt, Inc., 1981.

---. *Night and Day*. 1919. Harcourt, Inc., 1948.

---. *The Voyage Out*. 1915. Oxford UP, 1992.

---. *Writer's Diary*. 1953. Edited by Leonard Woolf, Harcort, Inc., 1982.

Abstract

Moments of Becoming in *Mrs. Dalloway* through the Nietzschean Philosophy

Kumjoo Kim

Woolf's *Mrs Dalloway* shows the experience of modern city life. Clarissa Dalloway goes out into the streets in London to buy the flowers for her party, and expresses her impressions for the dynamic street. Her opinion, "creating it every moment afresh," in the midst of feeling the dynamic energy and vitality of the street is related to the Nietzschean philosophy which asserts that only "becoming as invention, willing, self-denial, overcoming of oneself" is clear and meaningful. Nietzsche does not believe the essential nature, and asserts that there is only something non-identical, changing, in flux which does not aim at a final state, does not flow into being—becoming. Therefore, according to Nietzsche, there is no truth itself; there are only interpretations. He asserts that the value of the world lies in our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is creation, so men are creators.

On the street of London, when Clarissa says "what she loved: life; London; this moment of June," this "moment" is related to Nietzschean "moment" as becoming. Deleuze explains that this moment is not a terminal state, the present moment is not a moment of being or present 'in the strict sense,' and it forces us to think of becoming. Clarissa experiences this moment as becoming with delight, but a certain fear lurks in her delightful state of mind. Thus, we can see Clarissa's affirmation of becoming in the process of Clarissa's overcoming what makes her fear. The narrative of Clarissa's self-creation parallels the narrative of Septimus in *Mrs. Dalloway*. The narrative of Septimus deepens the theme of moments of becoming in *Mrs. Dalloway*. Clarissa and Septimus actually do not see each other. However,

Clarissa goes through suffering and overcomes it through the accidental encounter with him by getting the news about his suicide during her party. This accidental encounter as her significant experience of the moment brings Clarissa to new awakening and gives her an impetus for her affirmation of her life. Paying attention to the process of Clarissa's affirmation of her life, Woolf shows that Clarissa obtains Nietzsche's formula "to stand in a Dionysian relationship to existence"—"amor fati."

■ Key words : Virginia Woolf, *Mrs Dalloway*, Friedrich Nietzsche, becoming, moment, self-creating, will to power
(버지니아 울프, 『댈러웨이 부인』, 프리드리히 니체, 생성, 순간, 자기 창조, 힘에의 의지)

논문접수: 2018년 5월 17일
논문심사: 2018년 6월 8일
게재확정: 2018년 6월 21일